

SUMMER

2021

하늘꿈중고등학교 여름소식지



Contents

3	교장 선생님 서신
4	하늘꿈 기획
7	하늘꿈 버팀목
10	하늘꿈 르포
12	우리들의 이야기
14	하늘꿈 열매
17	하늘꿈 소식
19	후원자 명단

° 2003년 개교한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1호.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좋은씨앗이 운영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10개의 가정형 기숙사 운영

° <수상> 통일부장관상(2001), 국무총리상(2002), 한국감리교선교대상(2002), 서울시장상(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2009), 세계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루비상(2012), 자랑스런 정신동문상(2017),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2019)

° <외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0), 미국 국무부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 선정(2011),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운영 외부평가단 평가 우수학교(2012),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3),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2014), 공동모금회 북한이탈학생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북한이탈학생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2016), 교육부 지정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 교육청 『연구학교』 선정(2017~2018)

° <하늘꿈학교 사명선언문>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 <핵심가치> Integrity(온전함), Frontier Spirit(개척 정신), Incarnation(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Hope in Christ(소망의 인내), Next Generation(다음 세대)

우리는 행복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교무실을 나서자 아이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이들 처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계이름도 모르고 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지 몰라
피해 다니던 아이들과 졸업생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연주가 다소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두색 잎이 짙은 녹색으로 변해가는 5월은 우리에게 참 특별합니다.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 우리는 카네이션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느끼면서....

온전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어색합니다.
어린 시절 울타리가 되어 줄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생존을 위해 애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법도 모릅니다.

5년 전부터는 학교가 집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거절감의 쓴 뿌리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되다 보니 학교를 집보다 편안하게 여깁니다.
공부가 싫지만 학교에서 밥 먹고, 운동하고 선생님들의 일을 거들기 기뻐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
눈 앞에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끈끈해집니다.

학생들의 아픔을 품고 인내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심이 이들의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버지날에, 졸업해서는 스승의 날에 꽃과 마음을 담아옵니다. 큰소리 치면서...
대견하여 입가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20, 30, 40대의 교사들이 이들의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심사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투기, 비트코인, 주식 등등... 없습니다.
단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교사들이 대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그냥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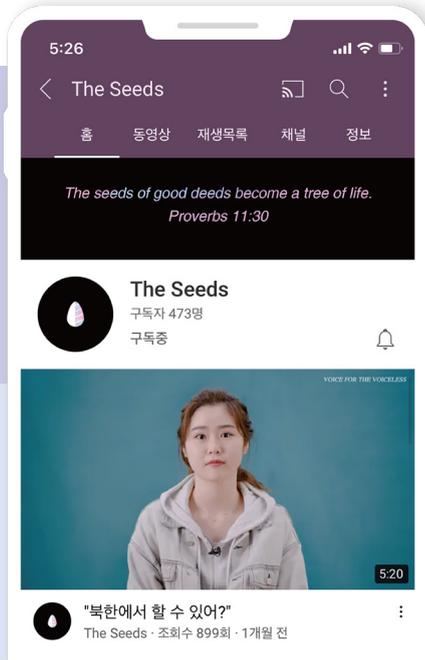
하늘꿈학교는 정말 행복한 학교입니다. 🌈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하늘꿈 유튜브 채널 'The Seeds'를 만드는 사람들

The seeds of good deeds become a tree of life

Proverbs 11:30



The Seeds

: 씨앗

: 하늘꿈 유튜브 채널

: 북한 복음 통일을 예비하다

하늘꿈의 사명이 집약돼 있는 유튜브 채널 'The Seeds'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The Seeds는 하늘꿈 미디어 선교의 중심으로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채널 오픈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기도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기획담당 정웅섭 행정실장

The Seeds의 기획의도는 무엇인가요?

The Seeds의 핵심가치는 진정성입니다. 하늘꿈학교의 진정성 있는 통일준비 과정을 많은 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전달 수단을 고민하다 영향력이 가장 큰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늘꿈학교만이 말할 수 있는 북한과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파할 것입니다.

YouTube의 인기 영상은 자극적인 소재와 선정적인 장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The Seeds의 영상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동역자들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꾸밈없이 전할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The Seeds의 영상이 조회 수로 평가되지 않는 영적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의 주 타깃이 있나요?

하늘꿈학교의 후원자와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이 주 타깃입니다. 후원자에게 학교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학생들이 졸업생으로 배출되는지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늘꿈학교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학교의 지향점에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동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3-4분 분량의 영상을 양질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편을 많이 만들기보다 적은 수의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성심을 다하여 양질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장비도 기본적으로 고가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The Seeds의 영상을 보고 난 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확신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작되는 영상이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을 위해 필요한 자들을 준비시키는 자극제가 되길 원합니다. 영상 자체가 생명나무의 씨앗이 되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북한 청소년을 20년 동안 경험한 하늘꿈학교만이 말할 수 있는(the real thing)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카테고리별 영상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늘꿈학교 VLOG

학생들의 일상과 함께 북한 통치체제로 인해 나타나는 북한 청소년의 인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씨앗, 좋은 열매

하늘꿈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하늘꿈 생활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착기를 이야기합니다. 졸업생의 모습을 통해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견고 있는지 확인받고, 건강하게 정착한 모습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들

하늘꿈학교와 관계된 전문인 사역자, 평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역자의 북한 사역을 소개하고 동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음을 알립니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헌신과 희생의 고귀한 가치관을 전합니다.



Voice for the Voiceless

북한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학생들의 스토리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또한 하늘꿈 학생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담당 박태규 감독

The Seeds 영상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6년부터 학교 영상을 만들고 있었지만, The Seeds 시작 전에 해왔던 작업은 대부분 단발성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 비전캠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널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꿈학교도 한마음으로 이에 공감하셨고 약 3개월의 준비를 거쳐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널이 잉태되기 위해 학교와의 동역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영상 제작에 임하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짜인 각본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의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증언하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나 각종 인터뷰를 찍을 때 이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진실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 영상으로 쓰였던 '하늘꿈학교 :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와 동행해서 나온 결과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영상 내 삽입된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되고 편집할 때 핵심이 명료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한마음'으로 학교와 동역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중에 하나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부어주셨고, 누군가 저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만들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죠. 하늘꿈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제 옆에 서주셨던 것 같아요.



영상 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있다면요?

영상업에 처음 입문했을 때 저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TV 채널'의 뜻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어 단어 '채널(Channel)'의 뜻 중에 하나가 물이 흘러가는 '수로(水路)'이고 결국 미디어의 본질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죠. 7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영상을 만드는 제 마음의 첫 번째 가치인 것 같아요.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네요.

The Seeds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북한 땅에 생명나무가 자라기 위해 던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Seeds의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북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The seeds of good deeds become a tree of life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 잠언 11:30 -

다비육종 CEO 윤희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다비육종의 회장으로 있는 윤희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일가재단 이사로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비육종 회장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다비육종은 어떤 회사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 40세에 다비육종을 설립했습니다. 주 업종은 양돈 종자 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덟 군데 돼지 농장도 운영하며, 요즘에는 자연 수정보다는 인공 수정으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인공 수정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먹는 사료 공장과 '얼룩도야지'라는 하늘꿈학교에도 후원하는 돼지고기 유통 사업을 합니다. 이 돼지고기가 납품되는 식당이 유명 맛집으로 소개도 되고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축산업(양돈)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무엇인가요?

제가 68년 삼성그룹에 입사했는데, 양돈을 하게 된 것은 입사 후 5년쯤 지난 73년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용인 그 당시에는 자연농원에 양돈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그 일을 맡아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 사업을 하면 작은 규모로 하지는 않죠. 삼성에

서 일할 당시 이병철 회장님께서 돼지 5만 두를 계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최초 기업 양돈을 계획하셨는데, 제가 20대 후반 어린 나이에 책임자가 되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보니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제일 좋은 빌딩 사무실에서 벵타이 매고 근무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고생스럽지만 양돈 일이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천직이라 느껴져 하다 보니 내후년에는 50년이 되네요. 50년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2005년 금강산 지역에 종돈을 지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우리 회사의 종자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금강산 지역에 2번, 개성지역에 1번 공급했었죠. 북한 현지 종자와는 다르게 새끼도 많이 낳고, 너무 빨리 크니까 북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더불어 인공 수정도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수의사가 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노하우를 계속 전수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종돈이 북한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2019년 제1회 하늘꿈학교 축산투어

다비육종이 북한에 돼지 지원을 한 첫 번째 기업인 거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그보다 먼저 소 떼 방북을 했었고, 돼지 종자로는 다비육종 기업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십 년쯤 된 것 같은데 일가재단에서 통일장학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을 통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의 탈북 학교에 후원을 하고 있고, 학생은 금년에 7기까지 누계로 39명 정도 후원했습니다. 탈북 학생, 탈북 학교를 알고 나서는 다른 곳 보다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을 정리하고 탈북민에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탈북민들이 빨리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통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돕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중에서 제일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여러 전문가가 이야기했듯이 시너지 효과가 큼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남한에 잘 정착해서 사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그들이 남한에 더 호감도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북한 자기 고향에 가서 일할 때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실정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쌓은 실력을 발휘하면 산업을 금방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에 양돈업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곡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곡물을 먹고 자라는 닭이나, 돼지를 많이 기르지 못합니다. 대신 주로 풀을 먹는 초식가축 토끼, 염소, 소 등을 기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개방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옥수수나 쌀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계란, 우유, 치즈, 닭고기, 소고기 다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축산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맨주먹으로 이만큼 키웠듯이 북한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농경지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거름이 없어요. 가축 키우면 유기질 비료가 나오니 북한 땅을 비옥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업하고 돈 벌기에 양돈사업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동기부여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항상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지붕이 날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청소년은 목숨 걸고 도전을 해봤잖아요. 어려운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표만 잘 설정하면 동기부여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지만 성취욕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학생보다 훨씬 더 말이죠.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일가재단 장학생 중에 장학금이 없었으면 대학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라든지, 1기 장학생 중에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을 했는데, 1년 후에 기부를 하는 장학생을 봤습니다.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첫 출근을 하고 나서 인사하러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키다리 아저씨'로 부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77세입니다. 내후년이면 양돈으로 50년째이고, 다비육중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금 하던 일을 하다가 그 후에는 남을 돕는 일에 힘닿는 한 일하려고 합니다. 제일 보람 있는 일은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잘 됨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늘꿈 전문인 특강 ‘미래를 향한 도전’

4월 27일, 전교생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1층 채플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모인 이유는 특별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하늘꿈을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명사님과과의 시간은 자주 오지 않기에 학생들은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명사로 초청된 분은 삼성바이오에피스 CEO인 고한승 대표님입니다. 굴지의 기업에서 현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를 이끄시는 대표님은 하늘꿈에선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고 계신 하늘꿈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삶의 지혜까지 전해주시는 대표님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전의 가치가 담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변화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

1. 성장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성장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찾자. 큰 규모이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 유망하다!

2. 기업 간 생존 경쟁, 일이란?

일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는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을 함께 힘을 맞춰 이루는 곳이다!

3. 회사 생활에 임하는 5가지 업무 철학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법은?)

(1) 끈기와 도전

끈기는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결과가 두렵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불평불만하고 싶지 않다면 도전하라!

2) 기본과 원칙

업무상 떼뻗해지고 보호받기 위해서 정해진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

3) 데이터 기반 사고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자. 숫자는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4) Lessons Learned

똑똑한 실패를 통해 배우자. 실수가 아닌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반복하지 말자!

5)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소통 역량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명사님 강의를 깊게 새긴 하늘꿈 학생들

강의를 듣고 무엇을 느꼈나요?

강의를 들어보니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하신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원래 일이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
규칙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끈기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재능, 아이큐,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용기가 나요.

끈기와 인내는
매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게 새로워요.

실패를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게 와닿아요.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게 있나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살아서 더 좋은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향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 간 신뢰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을
더 잘 지켜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부터 영어 공부도 하고
제 관심 분야를 공부하며
자기계발을 하겠습니다.



2021년 졸업생들의 대학생활, 그리고 하늘꿈학교

지난 우리들의 이야기

지난 소식지 '우리들의 이야기'에선 하늘꿈을 떠나는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아쉬움과 후련함,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겨울은 가고 어느새 여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요. 후원자님들의 기도로 귀하게 자란 졸업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딱끈따끈한 3개월 차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새 학교생활은 어때?

이*성 너무 재미있어요. 가끔 학업에 치여 힘들 때도 있는데 힘든 만큼 내가 이룬 성과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껴요.

김*림 대학생활은 제게 선물 같아요. 가끔 힘들고 지치지만 모두 소중한게 기억될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민 새로운 경험들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과제 가 어렵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가장 힘든 점,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

이*영 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평일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김*옥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지가 많아 결정하기 어려울 때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본격적으로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에요.

이*민 대학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힘들었지만 나도 대학생이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북한에 살면서 대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해서 이 자체는 제게 기적과도 같아요.

하늘꿈 생활 중 기억에 남고 그리운 것이 있다면?

김*림 매일 아침에 했던 큐티가 가장 그리워요. 소중한다고 못 느꼈는데 졸업하고 나니 성경책을 읽고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혼자 하기도 힘들거든요.

이*민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던 채플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도 그립고요.

김*진 학교 밥이 너무 그리워요. 여긴 비싸고 맛이 없어요. 하늘꿈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어?

김 * 옥 늘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다음 학기에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 * 민 사회복지학과 소모임인 신우회에 가입해 매주 월요일에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는데 그때 심어진 말씀이 이곳에서 커나가는 것 같아요.

이 * 영 대학에 와서 믿음 생활이 조금 흔들렸지만 다행히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비전)이 있다면?

김 * 림 우선 대학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해서 축산업의 전문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서 축산농장을 세우고 베풀며 살고 싶어요.

이 * 민 사회복지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나 국내 어디든 가서 봉사활동을 꼭 하고 싶어요.

김 * 진 무사히 4년을 마치는 게 꿈이에요. 대학을 마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 성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 할게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옥 너무 말도 안 되게 보고 싶어요. 대학은 정말 외로워요. 그럴 때마다 학교가 생각나요. 따뜻함을 준 학교, 선생님 모두 제가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김 * 림 교장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어요. 가족도 아닌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셔서요. 힘들 때 기도로 이겨내시는 것 다 알아요. 덕분에 저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 민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 까막눈이던 저희를 이렇게 대학교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하늘꿈에서 받은 사랑, 저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 14회 졸업생
최윤진



간호학과 학생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하늘꿈학교를 졸업하고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진입니다. 2015년에 하늘꿈학교에 입학했으니 3년 정도 다녔네요.

탈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탈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부이신 아버지 덕분에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언니가 전화해서는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안 가겠다고 했죠. 제 대에는 가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아, 나이 더 드시고 돌아가시면 너 혼자서 북한에서 살 수 있겠어?" 그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언니가 브로커를 보내줘서 탈북했습니다.

두 딸이 한국에 있는데 혹시 북한의 부모님께 피해는 없나요?

아마 저와 언니는 모든 서류에는 물론 족보에도 지워졌을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살았던 당시를 기억하는 이웃들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간부이기도 하고 다들 모르는 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 년에 두 번 정도 연락드려요.



하늘꿈 영어통일캠프(EUC)



하늘꿈 백일장 대회



하늘꿈 홈커밍데이

나에게 하늘꿈은

하늘꿈학교는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어요?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하늘꿈학교 졸업생이에요.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언니가 하늘꿈학교를 너무 좋아했는데 처음엔 학교가 다 똑같지 뭐 저렇게까지 그러나 싶었지만, 저도 다녀보니 탈북청소년들에게 하늘꿈학교 같은 곳이 없어요. 요즘 말로 '우주최강' 학교입니다.

하늘꿈학교의 첫 느낌, 어땠어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 붙잡고 라면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아빠와 아들 사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면서 기숙사 선생님이신 것을 알고 여기는 학교가 참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생각했죠. 힘든 점은 공부가 힘들었어요. 저는 하늘꿈학교에 와서 A, B, C부터 시작했거든요. 완전 기초부터 시작했으니 얼마나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었겠어요. 알파벳 대문자가 어려웠다고 말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랬던 제가 지금 간호학과에 와서 의학용어를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죠.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일이에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함께 살았던 기숙사 선생님께서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셨어요. 학교 옆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갔었는데, 엄청 많은 분이 북한을 위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혹시 있나요?

저의 첫 담임 선생님이셨던 한숙 선생님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았던 김은희 목사님이요. 한숙선생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어리바리하던 시기에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 생일이라서 선생님께 생일파티 가야 하니까 수업을 빼달라고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학생에게 우선은 수업이지 생일파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의 질서를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김은희 목사님은 학교에서는 엄한 모습이지만, 기숙사에서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세요. 허물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왜 간호학과에 진학했나요?

북한에 있을 때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북한에는 의사도 별로 없고 간호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면 뇌물이 필수예요. 뇌물이 있어야 치료도 먼저 받을 수 있고, 아픈 사람에게 불친절한 모습이 참 별로였어요. 처음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늘꿈 영어통일캠프(EUC)



리더십캠프

앞으로의 삶은

간호학과 공부 어렵지 않아요?

하늘꿈학교 다닐 때 3~4시간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간호학과 1학년이 의외로 할 만했습니다. 교양은 무조건 A 학점이 목표였고, 생물학을 배우지 못해 어려웠지 글쓰기 같은 것들도 이미 하늘꿈학교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하늘꿈학교 다닐 때는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만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하늘꿈학교에서의 경험이 모두 다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당황할 때 저는 여유가 있었어요.

4학년이니 진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진로에 대해 생각이 많아요. 제가 돈을 우선으로 놓고 취직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이 일산이니 일산 쪽 병원에 취업할 것 같습니다.

윤진이의 꿈은 간호사인 거죠?

한국 사회가 노령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싶어요. 일단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임상경력을 잘 쌓아야겠죠.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대학원도 나와야 하니 공부도 계속하려고요.

윤진이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으니까 늘 통일되면 무엇을 할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고향 가서 의료선교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늘꿈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잘 하면 대학 가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진부한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학교를 믿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원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후원자님이 없으면 지금 하늘꿈학교 학생들도 없어요. 돌아보면 한국 와서 하늘꿈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째 돈을 벌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하늘꿈학교로부터 장학금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윤진이는 하늘꿈학교에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늘꿈학교에 계셔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I. 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월요채플: 인도 선교현장

인도선교사이신 원정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지난 4월 19일 월요채플에서 인도 선교 현장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도 상황은 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또한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4월 23일 하늘꿈 교직원들은 수정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방문 및 식사 시간에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위해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자동 체온 측정기를 구비하여 방역 체계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최선의 대응과 함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 되길 기도합니다.



II.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한국어 교육 강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은 최근 10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탈북 여성과 제3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꿈은 이 아이들을 품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한국어 수업은 방과 후에 실시되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교과 수업 안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하늘꿈 공동체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IV.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제주중앙고등학교 MOU

하늘꿈학교는 통일시대 남북 청소년 간 차이를 좁히고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본교는 제주중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제주도민일보에 실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와 하늘꿈중고등학교(탈북청소년대안학교)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학교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노력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 학생들이 상호 방문해 교류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도민일보(<https://www.jejudomin.co.kr>)



III.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의 필요성

V. 하늘꿈 공동체 PART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늘꿈 가족

리더십콜링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재학생 리더십 캠프(DTS)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리더십 콜링'이란 이름으로 3월 2~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개학을 맞아 학교에서 가정, 성교육,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본 통일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며 영적 양분을 흡수했습니다. 내년 리더십 캠프는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지사항

2021학년도 하늘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4세에서 25세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북한이탈청소년)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사진(3*4 반명함판) 2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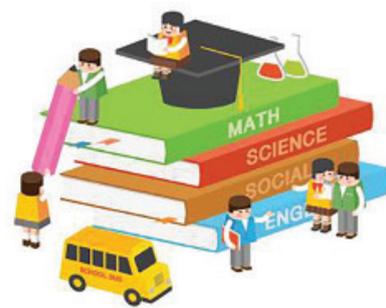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자료(검정고시합격증, 학력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하늘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입니다.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 기도해주세요

- 고3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없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어려움 없이 입시 과정을 거치게 하옵소서.
- 북한 주민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합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교육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후원자명단

<2021년 2-4월 후원자>

<개인후원>

NMK 강건 강경인 강금봉 강대용 강문호(김은애) 강보경 강선영 강선희 강성환(박난숙) 강수진 강승현 강영옥 강유정 강윤모 강윤희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홍재 경순미 고남숙 고문주(이정은) 고순예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종호 고준호 고차원 고한승 고현희 곽난숙
 곽원섭 곽효진 곽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효민 권대영 권상영 권세영 권영미 권윤옥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권후자 길종두 김강석 김건철 김경근
 김승경 김경의 김경이 김경중 김경중 김경하 김경현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운 김공순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순 김기태 김기홍 김누리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풀무원드림상사) 김동현 김만희 김복희 김보성 김무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자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보경 김보연 김상할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승범 김승희 김신애 김아미 김아영 김여환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한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원아 김유라 김유리 김은덕
 김은란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애 김은희 김인숙 김인애 김일권 김일희 김정미 김정한 김정호 김정희 김종익 김종훈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지연 김지인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춘미 김춘희 김태연 김필수 김필중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형애 김형중
 김혜연 김화영 김훈성 김홍순 김희연 김희정 나옥 남광우 남금형 남소영 남정희 노금자 노상균 노재열 도태우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문수정
 문윤태 문혜은 문형석 박가영 박경수 박경희 박근양 박금희 박기완 박나라 박난희 박동소 박동찬 박미란 박미숙 박미영 박민호 박범도 박선여
 박선영 박성숙 박성은 박석희 박세정 박세중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신영 박옥순 박유찬 박은숙 박은영 박재원 박정자 박정희 박종영 박주향
 박지연박지영 박찬수 박창수 박천희 박태구 박현선 박혜경 박혜영 박호준 박효정 방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에 배연옥 배유미 배재범 배정인
 배현규 백기범 백창현(박세정) 변창수 부성범 서동민 서승희 서신덕 서영옥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우 성재우 소정섭 손경연 손민영 손영환
 손주호 손혜경 송미화 송영훈 송예진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현성 송현석 송현혜(유성혁) 신기루 신다혜 신미령 신민우 신선원 신성순 신수지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현식 안상미 안성숙 안연희 안종성 안지영 안지혜 안진규 안진화 양승달 양영옥 양영준
 양승철 여인목 염선아 오민아 오민택 오상윤 오용택 오은수 오한석 오하봉 옥승란 우선숙 우하영 우현정 원두연 원용선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영준 유성은 유성혁 유영만 유은희 유의동 유지영 유지혜 유현숙 윤경원 윤광무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삼희 윤용식 윤용환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희 이기숙 이낙영 이능경 이덕자 이두완(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미지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병희 이부길
 이상미 이선아 이선자 이선희 이성국 이성옥 이성우 이성후 이성희 이수미 이수화 이수근 이승구 이승용 이영주 이예은 이예진 이원준 이원미
 이원순 이우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인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동 이재영 이재준 이재훈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종원 이종호 이주연 이지애 이지은 이지은 이진규 이진숙 이진주 이철용 이철용 이태만 이태용 이학승(김숙희)
 이한나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혜숙 이호현 이효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영 이희천 인선옥 인지연 임경아 임다솔 임미영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유라 임윤아 임은 임은주 임재경 임현주 임형목 임혜정 임희숙 장경란 장귀옥(장대보라) 장동현 장성옥(김춘희) 장세환
 장숙희 장순덕 장언지 장익진 장인석 장진실 장하나 전계화 전동희 전성기 전주정 전유화 전태숙 전효진 정경란 정길아 정동련 정미선 정미순
 정미희 정민호 정병윤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양 정요한 정영순 정유진 정윤경 정은희 정재우 정재한 정재훈 정주화 정지영 정지희 정진근
 정진수 정창우 정형자 정혁중 정현강 정희경 제갈민정 조경미 조명희 조미숙 조상준 조성라(부성범) 조성민 조성석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재
 조윤경 조재숙 조정희 조진희 조찬영 조청용 조한 조혁 조현옥 조현정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홍희 조희준 주민선 주우진 주의숙 주혜정 지인애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령 채수련 천향숙 최대환 최란구 최선미 최선미 최성엽 최성이 최성일 최수은 최희희 최영순 최영자 최영향
 최옥수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인석 최준호(이은주) 최철훈 최혜연 최형숙 탁지혜 태수길 태원우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창직 하한(서승희)
 하혜숙 한규화 한상열 한재희 한정에 한정의 한진용 한춘자 한현진 한혜미 함채연 함혜주 허순영 허영미 현은주 홍가는 홍기옥 홍미영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현정 홍혜진 황광옥 황은혜황인자 황정희

<단체후원>

(주)경도기술 (주)니코글로벌 (주)인터케어 (주)제이앤비컨설팅 100주년기념교회 ENKO(엔코) 가락동부교회 강서침례교회 건국대학교병원노조
 광성교회최나비선교회 권선제일교회 글로벌엘림미션 기독교감리회본부선교국 기쁜교회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더사랑의교회
 북한선교부 더프레임종합건설 돈암감리교회 동광교회 동승교회 드림교회 미아중앙교회 반석교회 법무법인광장 북아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
 교회연합 사랑과은혜교회 사천은교회 산성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빛전원교회 서문교회 선단화목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북한
 선교국 선한목자교회젊은이교회 선한목자교회 총연합어선교회 성남제일교회 세신교회 시흥하늘꿈교회 신성교회 신촌감리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돌람선교회 아산병원진단검사학과 영통교회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예수동행교회 예수뿐인교회 옥토교회 우리들교회 은평교회 일산광림교
 회 정동제일교회 제자들교회 주님사랑교회 중곡교회 지구촌교회 목장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 진남제일교회 참빛교회 최기운&안미라굿뉴스 크
 리스천리더십아카데미 하늘가족교회 한국사회봉사회 한나회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통일선교 함께지어가는교회 행복나목교회 혜성교회

<물품후원>

(주)다비육동 (주)영원무역 (주)한화파워시스템 (사)더불어함께 새희망 부광교회 수원하나교회 영등포중앙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우림빌딩(정
 임) 강시내 김광명 김태현 소정섭 유순임 유금희 이정민 임병호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실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31)758-2071 | www.hdschool.org

* TOV PROJECT

하늘꿈학교 소식지는 종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